14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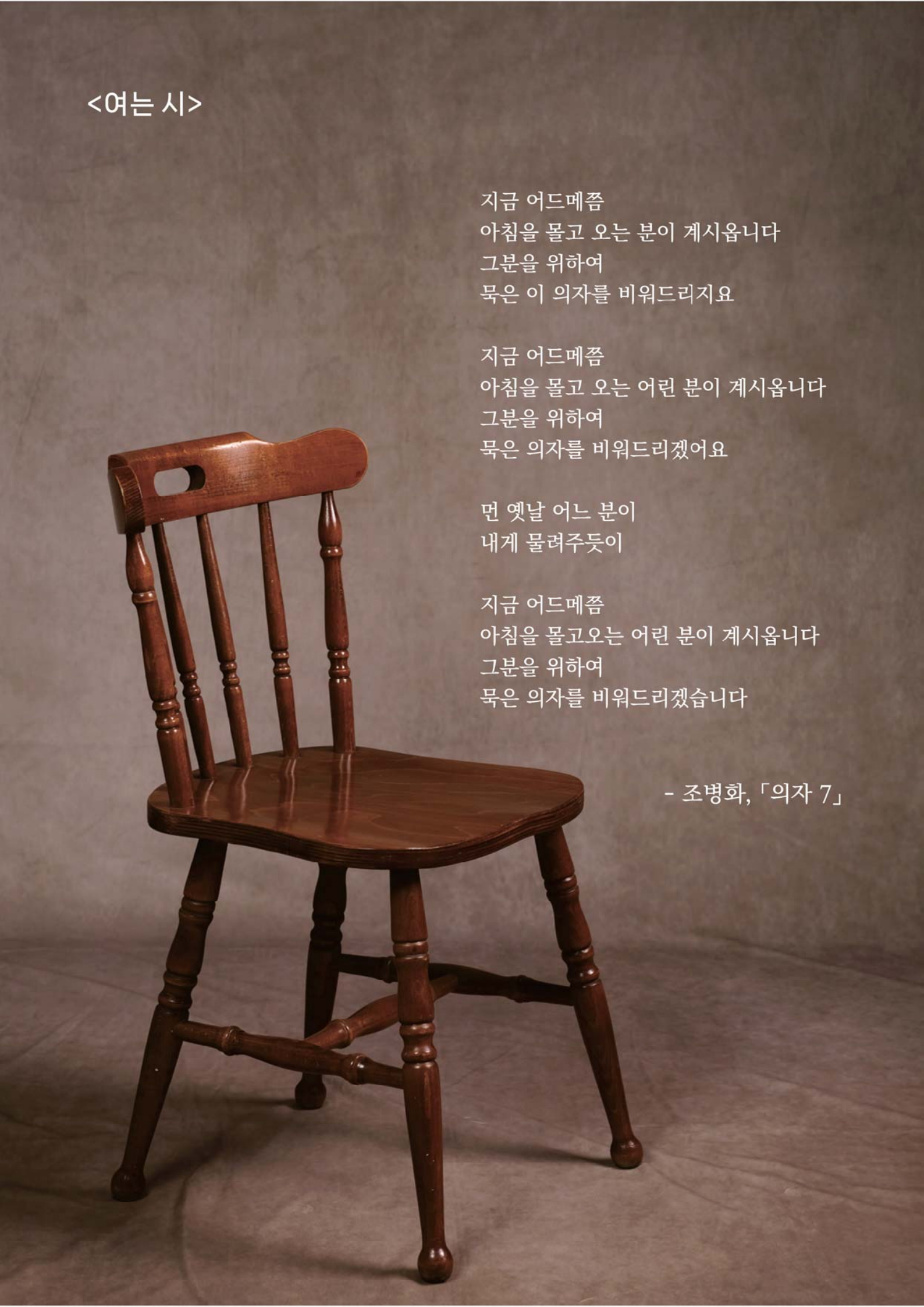
교수회보

2025년 2월



부산대학교 교수회
Faculty Council Pusna National University

<여는 시>



지금 어드메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지요

지금 어드메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겠어요

먼 옛날 어느 분이
내게 물려주듯이

지금 어드메쯤
아침을 몰고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겠습니다

- 조병화, 「의자 7」

Contents

04 교수회장 인사말 김정구 부산대학교 교수회장

교수회 활동 보고

06 제19대 교수회 행사
08 제19대 교수회 임원회
10 제10대 대학평의원회
11 제19대 교수회 평의회

교수회 발송문 모음

13 대학총장 임용추천자 선거 입법 관련 국교련 입장문
17 국립대 교수회 회장들, 정부의 대학 탄압을 규탄하고 대학 자율로 의대생 휴학 승인해
19 부산대학교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공고
20 2024년 전체교수회 정기총회 공고
21 교수회장 선거 지상토론 질문사항 요청 및 공지사항 알림
23 제19대 교수회 긴급 평의회 개최 알림
24 부산대학교 교수회 시국선언 성명문
25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시국 성명서
28 2024년 전체교수회 정기총회 및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안내
31 대학평의원회 제22차 결과 미반영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특집: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33 부산대학교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입후보자 공고
34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공보
36 소견서
38 부산대학교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지상토론문
43 부산대학교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당선인 공고
44 제20대 교수회장 당선자 인사말씀

국교련 하반기 주요 활동

46 국교련 하반기 주요 활동
55 고현철기념사업회 소식

교수 칼럼

57 빼기 건강법 -K 교수님께 윤영주 한의학전문대학원
59 따뜻함은 흩어지고 시간은 흐른다 정일경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61 교양을 '교양있게' 가르치자 윤기헌 예술대학 디자인학과

63 2024년 9월 ~ 2025년 2월 퇴직(예정) 교수 명단
64 2024년 9월 신규 임용 교수 명단
65 교수회 조직도

발행인 김정구
편집인 김중수
발행처 부산대학교 교수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교수회관2F
Tel. 051-510-1225 Fax.051-515-2236
E-Mail. facultycouncil@pusan.ac.kr
http://faculty.pusan.ac.kr
디자인 만수출판사
인 쇄 만수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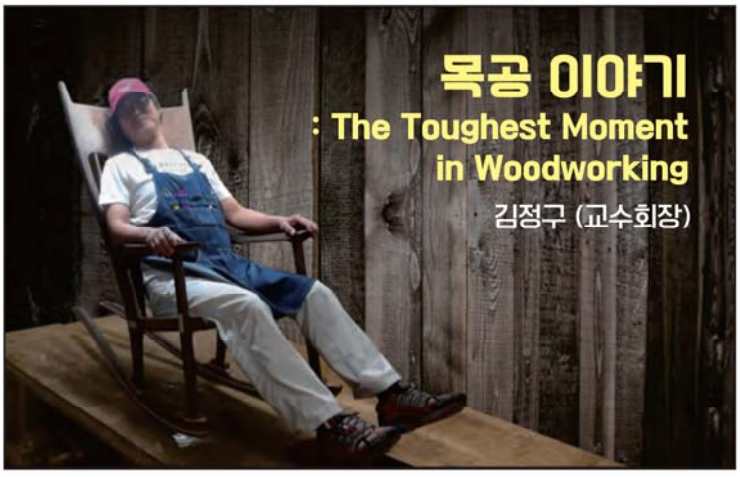
빛나는 부산대를 위하여

김정구 부산대학교 제19대 교수회장

여섯 가지 약속과 두 가지 다짐을 가지고 정문 앞에서 인사드리고, 부산대를 다시 빛나게 하기 위한 작은 움직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작한 부산대학교 제19대 교수회가 벌써 그 여정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치권의 도량발호(跳梁跋扈)와 대중의 양극화(Polarization), 그리고 개개인의 뇌썩음(Brainrot)의 세태 속에서도 대오·대과 없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수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돌아보면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은 것이 없는 허전함을 느낍니다. 교수회관을 새로 단장한 것과 교수님들의 작은 공연·강연은 잘했다 싶긴 합니다. 총장 임용 추천의 임무도 있었네요. 정년 앞둔 교수님들의 시수 감면은 이루어질 듯했지만, 아직 그 결과를 맺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난 1월, 계획에 없었던 작은 공연·강연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제 취미도 소개할 겸 "목공 이야기: The Toughest moment of in Woodworking"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습니다.







목공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만든 작품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고생해서 만들고 애지중지 보내드린 이것이 받는 사람의 마음에 쏙 들고 자랑이 되면 좋겠는데 혹시나 구박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떠나보낼 때 힘든 것처럼 떠날 때도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들었던 교수회관을 뒤로하고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몸은 교수회관을 떠나지만 마음은 영원히 교수회와 함께입니다.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점은 제20대 교수회장 당선자가 저의 교수회 활동의 동지였었고 교수회에 많은 애정을 가진 분이라 누구보다 교수회를 잘 이끌어 나가시리라는 것입니다.

미국 유학 중 클럽에서 야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앞의 4번 타자가 홈런을 칠 의욕으로 큰 스윙을 하다 삼진을 당한 후 타석으로 나가는 제게 한 말을 새 교수회장님께 전하고 싶습니다.

"Do What I Couldn't!"

2025년 2월

부산대학교 제19대 교수회장 김정구 드림

제19대 교수회 행사

1. 정년퇴임 교수 간담회 개최

- 일시: 2024년 8월 21일(수) 18:00
- 장소: 대성관
- 참석대상: 2024년 2월 및 8월 정년퇴임(예정) 교수

2. 전임교원 프로필사진 촬영 지원

- 기간: 2024년 9월 ~ 12월
- 장소: 학교 앞 얼짱사진관
- 내용: 전임교원 프로필사진, 증명사진 파일 및 인화사진 제공(전액 교수회 부담)

3. 교수회와 학술림이 함께하는 놀라운 숲해설

- 일시: 2024년 10월 14일(월) 14:00
- 장소: 제1학술림(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산180-2번지)
- 숲해설: 조경학과 최송현 교수

4. 교수회와 함께하는 작은 강연회 개최

- 8월 강연회: 8/21(수) 16:30, 정주섭 의과대학 교수
- 9월 강연회: 9/25(수) 16:30, 이준이 기후과학연구소 교수
- 10월 강연회: 10/23(수) 16:30, 문관규 예술대학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 11월 강연회: 11/27(수) 16:30, 김희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교수
- 1월 강연회: 1/22(수) 16:30, 김정구 교수회장
- 2월 강연회: 2/19(수) 16:30, 박은화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5. 시국선언 성명문 발표

- 일시: 2024년 12월 4일(수) 15:00
- 장소: 교수회관 2층 교수회 라운지

6. 2024년 전체교수회 정기총회

- 일시: 2024년 12월 18일(수) 13:00
- 장소: 교수회관 2층 교수회 라운지
- 주요안건
  · 전체교수회 감사 선출
  ·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안)
  · 「부산대학교 교수회 규정」 개정(안)
  · 제20대 교수회장 선출

7.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 일시: 2024년 12월 18일(수) 14:00-15:00
- 방법: 온라인 투표
- 결과: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이용재 교수 당선

총 유권자 수	투표자 수	투표율	찬성	반대
1,246명	542명	43.5%	505명 (93.17%)	37명 (6.83%)

- 임기: 2025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



제19대 교수회 임원회

구분	일자	주요안건
제42차	2024.07.17.	1. 제17차 교수회 평의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안건 검토 2. 총장선거 백서 진행사항 보고 3. 故고현철교수 추모식 4. 총장 대면식 논의사항 5. 김영호의원 대표발의「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6. 전임교원 프로필 사진촬영 지원 관련 논의
제43차	2024.08.08.	1. 부산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 추천 논의 2. 8월 작은 강연회 및 정년퇴임 교수 간담회 준비 3. RISE 관련 부산시장 간담회 4. 전임교원 프로필 사진촬영 지원 관련 논의
제44차	2024.08.21.	1. 제18차 교수회 평의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안건 검토 2. 교수회와 함께하는 8월 작은 강연회 3. 정년퇴임 교수 간담회
제45차	2024.09.11.	1. 제19차 교수회 평의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안건 검토 2. 교수회와 함께하는 9월 작은 강연회 3. 2024년 교수회 정기총회 일정(안) 4. 산단 연구비 및 기본연구지원사업 관련 논의
제46차	2024.10.16.	1. 제19차 교수회 평의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안건 검토 2. 한의학전문대학원장 임용후보자 선호도 조사 참관인 추천 3. 국교련 심포지엄 개최 4. 책임시간 감면 관련 논의
제47차	2024.10.30.	1. 본부 보직자 간담회 논의사항 2. 2024년 교수회 정기총회 일정 확정 및 식순 논의

구분	일자	주요안건
제48차	2024.11.06.	1.「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 및 의견 제출 논의 2. 책임시간 감면 요청 공문 발송(수신처: 학사과) 3. 교내 주차난 관련 논의 4. 전임교원 경조사 지원 확대 논의
제49차	2024.11.20.	1. 제21차 교수회 평의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안건 검토 2. 치의학전문대학원·생활과학대학·예술대학·생명자원과학대학 학(원)장 임용후보자 선호도 조사 개표 참관인 추천
제50차	2024.12.04.	1. 2024년 전체교수회 정기총회 준비 2.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관련 논의 3. 의과대학장 임용후보자 선호도 조사 개표 참관인 추천 4. 교수회 평의회 및 대학평의원회 긴급 안건 심의 일정 논의 5.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대응 논의



제10대 대학평의원회

구분	일자	심의안건
제17차	2024.07.17.	(1호) 교육대학원 정보컴퓨터교육전공 신설 계획(안) (2호)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8차	2024.08.21.	(1호) 부산대학교 행정조직 개편(안) (2호)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9차	2024.09.11.	(1호) 2025학년도 대학원 학과(전공) 폐지, 신설(안)
제20차	2024.10.16.	(1호) 글로벌자유전공학부 신설 계획(안)
서면 심의	2024.10.21. -10.22.	(1호) 글로벌자유전공학부 신설 계획(안)
자문	2024.11.19. -11.24.	(1호) 2024학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제21차	2024.11.20.	(1호) 2025학년도 대학원 반도체공학과 신설 계획(안) (2호) 2025학년도 1학기 융합전공 신설(안)
자문	2024.12.12. -12.16.	(1호) 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등 교육과정 제·개정(안)
제22차	2025.1.14.	(1호)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 융합전공 신설 및 폐지(안) (2호)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규정(안) (3호) 단과대학급 (가칭)학부대학 신설(안) (4호) 2026학년도 학부 학생정원(첨단학과) 순증신청을 위한 정원 조정 계획(안)



제19대 교수회 평의회

구분	일자	주요안건
제17차	2024.07.17.	(1호)「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규정(안) (2호)「부산대학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호)「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호)「부산대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호)「부산대학교 행정조직·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면 심의	2024.07.26. -07.31.	(1호)「부산대학교 행정조직·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8차	2024.08.21.	(1호)「부산대학교 전문대학원별 입학전형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호)「부산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호)「부산대학교 기획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호) 부산대학교 행정조직 개편(안) (5호)「부산대학교 공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6호)「부산대학교 캠퍼스기획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호)「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8호)「부산대학교 학사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9호)「부산대학교 타 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호)「부산대학교 시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호)「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규정(안)
제19차	2024.09.11.	(1호)「부산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호)「부산대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호)「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구 분	일 자	심 의 안 건
제20차	2024.10.16.	(1호) 「부산대학교 국내·외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과정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호) 「부산대학교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호) 「부산대학교 정보화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호) 「부산대학교 행정조직·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면 심의	2024.11.19.-11.24.	(1호) 2024학년도 제1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제21차	2024.11.20.	(1호)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긴급 평의회	2024.12.04.	(1호) 시국선언 성명문 채택
제22차	2025.1.14.	(제1호) 「부산대학교 행정조직 부속시설 등의 설치 운영과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호)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호)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규정(안) (4호) 단과대학급 (가칭)학부대학 신설(안) (5호) 2026학년도 학부 학생정원(첨단학과) 순증신청을 위한 정원 조정 계획(안) (6호) 주요보직자 임명(대외협력부총장, 정보화본부장)

제19대 교수회 발송문

[2024년 7월 16일]

대학총장 임용추천자 선거 입법 관련 국교련 입장문

교수님,

지난 7월9일 김영호 의원(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립대 총장선거에서 학생을 포함해 교원,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이 협의를 거쳐 투표 반영 비율을 정하도록 하되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교원, 직원 및 학생별 각 투표율이 5%를 초과하지 않으면 총장 임용추천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첨부와 같이 반대입장문을 공동발표하였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살펴보시고 교육부가 실시하는 의견조사에 많은 의견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고 응원합니다.

교수회 회장 **김정구** 드림

제19대 교수회 발송문

[2024년 8월 30일]

교수회에서 교수님들의 프로필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잡지에 기고했는데, 방송사에 인터뷰했는데...

· 마음에 드는 프로필 사진 없으시죠?
· 홈페이지에 증명사진 올리긴 좀 거시기하진 않은가요?
· 교원 정보에 있는 사진은 입사할 때 제출한 사진 아닌가요?

교수회에서 교수님들의 자기 홍보를 위한 프로필 사진을 다음과 같이 찍어 드리고자 합니다. 내친김에 교원 정보, 공무원증, 신분증, 여권 등에 사용할 증명 사진과 여권 사진도 드립니다. 모두 공짜입니다. 많은 참여와 호응 바랍니다.

〈다음〉
- 대상: 프로필 사진을 찍기를 원하는 교수님 선착순 250명(전임교원)
- 장소: 학교 앞 얼짱사진관
- 기간: 2024년 9월 1일 ~ 12월 31일
- 사진: 프로필 사진, 증명 사진(3x4cm, 3.5x4.5cm) ※ 첨부파일 참조
- 조건: 학교·학과 홈페이지 및 교원 정보에 새로 찍은 사진으로 대치

〈공짜 사진 찍기〉
1. 얼짱사진관 방문: 예약 없이 가능, 화요일 휴무, 11:30~20:00
2. 본인 확인: 부산대학교 어플리케이션-모바일 교직원증
3. 성함, 소속학과, 이메일주소, 연락처 작성하기
4. 사진 찍기
5.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정하기_없으면 4로 가기
6. 교수회관(농협 2F)에서 사진 찾기(촬영 이후 차주 화요일부터 수령 가능, 파일은 메일 발송)
7. 홈페이지, 교원 정보 등에 새 사진 등록하기
8. 아직 찍지 않은 교수님께 자랑하기

〈추신〉
1. 사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2. 호응이 많으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응원합니다.

제19대 부산대학교 교수회

제19대 교수회 발송문

[2024년 10월 2일]

의대 교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부산대학교는 5월 21일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유례없는 교무회의 재심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대학생들이 돌아올 작은 빌미라도 주고자 하였던 교수회의 노력이 수포가 되었고 부산대의 명예와 자부심은 한순간에 실추되었습니다.

교무회의의 결정을 탓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결정 뒤에는 정부와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불이익과 같은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교육부로부터 임용된 신임 총장으로서는 이를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학의 자율은 실종되었습니다. 대학의 자율은 창의력과 교육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덕목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두 눈 부릅뜨고 야단치면 더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눈 감고 보듬어 주면, 또 믿어 주고 믿음을 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학생들을 엇나가게 한 것은 어른입니다. 불안 속에 지친 학생들이 교수들과 대학을 믿고 돌아와 주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교수회는 온 나무에 리본을 매는 심정으로 의대 증원을 부결했었습니다.

지난 학기 의대 재적학생 약 750명 중 95% 이상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내고 수업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만 정부는 여전히 동맹휴학은 허락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 학생들 모두 유급을 당하여 더 큰 피해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이 또한 어른들과 교수들의 책임입니다. 동맹이든 아니든 휴학은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이고 수업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수회는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고 의대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장님과 의대학장님께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교수님들께 호소합니다.

첫째,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행위입니다. 학생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수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책무를 가집니다. 학생들의 휴학을 조속히 승인하여 학생들이 돌아올 길을 마련하고 증원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율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고 또 그만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대학의 자율을 지켜준 정권은 거의 없었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정책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부산대학의 중흥과 국가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교육부의 정책에 순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견해와 입장을 굳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대 교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며, 아울러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문화국가의 원리가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2024. 10. 2.

함께하는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정구** 드림

제19대 교수회 발송문

[2024년 10월 15일]

국립대 교수회 회장들, 정부의 대학 탄압을 규탄하고 대학 자율로 의대생 휴학 승인해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거국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생 휴학과 관련한 교육부 의 강압적 조치를 비판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도외시하는 휴학 승인 취소 요구를 즉시 중단할 것을 공문을 통해 요구했다고 밝혔다.

거국련은 교육부가 최근 서울대 의과대학이 승인한 의대생 휴학결정을 취소시키기 위해 의과대학과 본부에 대해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특정감사를 반민주적이고 대학의 자율 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했다며 벌을 주듯이 휴 학 승인을 불허하는 자체가 학생과의 소통을 포기하는 것이고, 악화된 교육환경을 조금이 라도 개선하려는 대학의 노력을 교육부가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헌법과 법률로 자 율성이 보장된 대학이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한 휴학승인 조치를 교육부가 특정감사를 앞 세운 행정력으로 무효화시키려는 행태야말로 비민주적임은 물론, 현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대학의 자율성 강화 정책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거국련의 한 회장 은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강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교수들 사이에서 교육부 폐지의 당위성을 느끼게 하여 (폐지를) 공론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국련 회장들은 "각 대학의 교육환경은 많은 차이가 있고 학칙도 달라, 의대생들의 휴 학 승인은 전적으로 각 대학 자율로 결정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필수진료와 지역의 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은 많은 국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추진방식과 절차를 잘못 정해버려 의·정갈등이 심화되었고 포퓰리즘이 만연된 정치문제가 되었다"라고 진단한 회장들은 "평교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국련은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정 양측의 전문적 협의와 별개로 의학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일관성 있는 학사운영을 위해 교육부 의 강압적 조치가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거국련 회장들의 한결같 은 주장은 필수진료와 지역의료의 증진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 노력은 절차적 정당성과 전문성을 가져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의·정 모두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 을 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그 어느 쪽도 진심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거국련이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대학 자율성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부의 강압적 조치 철회요구

1.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한 부총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교육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을 번복하고자 서울대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음은 물론, 의과대학을 설치한 각 대학에게도 휴학을 불허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3.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거국련')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의 학습권 및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학생 휴학 불허를 위한 반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시 철회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4. 거국련은 정부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의학교육의 연속성 확보와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전국의 의과대학 및 의대를 설치한 각 대학에 의대생의 휴학 승인 여부를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 입니다.
5. 거국련은 필수진료와 지역의료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전문 성과 합리적인 정책이 헌법에 기반한 민주적 절차로 구현되어야 의료개혁이 완수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교육부는 우리의 요구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 학의 자율성과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거국련은 향후 국교련을 포함한 여러 교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학의 자율성 수호와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학의 자율성 수호와 잘못된 정책의 수정을 위 한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거국련의 모든 노력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근간을 지키고 헌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지키기 위함이다.

2024년 10월 14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나다 순)
강원대학교 교수회 회장 우흥명
경상국립대학교 교수회 회장 민병익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정구
서울대학교 교수회 회장 임정묵
전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재관
전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동근
제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양창용
충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최인호
충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종진

제19대 교수회 발송문

[2024년 11월 4일] 공고 제2024—01호

부산대학교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공고

「부산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3조(임원)에 의거하여 제20대 교수회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부산대학교 제20대 교수회장 선거관리위원장



1. 선 거 명: 부산대학교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2. 선거일시: 2024년 12월 18일(수) 14:00 ~ 15:00 ※ 교수회 정기총회 13:00 예정
3. 선거권자: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원(단, 휴직자 제외)
4.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가. 열람기간: 2024년 12월 11일(수) ~ 12월 12일(목), 10:00 ~ 17:00 (2일간)
나. 열람장소: 교수회 행정실(교수회관 2층)
다. 열람권자: 선거권이 있는 자
라. 이의신청: 선거인명부에 오기 또는 누락, 선거권자가 아닌 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교수회 행정실)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5. 후보자등록 신청
가. 신청기간: 2024년 12월 3일(화) ~ 12월 4일(수), 10:00 ~ 17:00 (2일간)
나. 등록장소: 교수회 행정실(교수회관 2층)
다. 신청자격: 부교수 이상인 회원으로서 본교에서 재직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라. 신청방법: 입후보등록 서류(교수회 소정양식)를 갖추어 신청함
6. 선거운동의 방법
가. 선거운동기간: 선거후보자의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12/5~12/17)
나. 선거공보의 배부
다. 지상토론자료 인터넷 게시
라. 합동연설회(선거일 당일 1회)
마. 부산대학교 제20대 교수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
7. 투표 방법 및 절차
가. 투표 방법: 온라인 투표
나. 투표 절차: 카카오톡 수신(카카오톡이 없는 경우 자동문자 발송됨)→투표용 모바일 웹사이트에 접속→ 개인정보 동의 및 휴대폰 번호로 본인 인증→투표
※ 카카오톡, 문자 모두 수신 불가할 경우, 12/12까지 교수회에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별도 이메일 투표 신청
8. 개표소 명칭 및 소재지

명칭	소재지	비고
부산대학교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개표소	부산캠퍼스 교수회관 2층	전자개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수회 행정실(051-510-1224~5, facultycouncil@pusan.ac.kr)로 문의, 교수회 홈페이지(https://faculty.pusan.ac.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제19대 교수회 발송문

[2024년 11월 14일]

공고 제2024—02호

2024년 전체교수회 정기총회 공고

부산대학교 제19대 교수회

전체교수회 정기총회 공고

「부산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4조(총회)에 의거 전체교수회 정기총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수회장 선거는 온라인 투표로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일 시: 2024년 12월 18일(수) 13:00

2. 장 소: 교수회관 2층 교수회 라운지

3. 주요 내용
   ○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 온라인 투표 시간 14:00-15:00
   ○ 2024년 교수회 사업보고
   ○ 감사 선출
   ○ 안건 심의
   ○ 기타

2024년 11월 14일

부산대학교 교수회장

제19대 교수회 발송문

[2024년 11월 21일]

교수회장 선거 지상토론 질문사항 요청 및 공지사항 알림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교수회장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제20대 교수회장 선거를 위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상토론 질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상토론 질문지는 입후보 등록 후(12/4 17:00) 입후보자에게 전달되고,
선거공보에 입후보자의 지상토론 답변을 포함하여 12/10 전체교원에 배포 될 예정입니다.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입후보자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보내주시면 교수회장 선거관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지상토론 질문지에 싣고자 하오니 입후보자들에게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문양식: 첨부파일 참조
나. 제출방법: 이메일 송부(facultycouncil@pusan.ac.kr)
다. 제출대상: 전임교원
라. 접수기간 : 2024년 11월 26일(화) 17:00 까지

○ 교수회장 선출에 관한 공지사항

제20대 교수회장 선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부산대학교 교수회 규정 운영세칙 제6조(회장의 선출) 제2항
- 투표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1차투표에서 투표회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 전체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결선투표에서 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나. 제1차 선거관리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2024.10.30.)
- 결선투표 재투표에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부산대학교 장기 재직자 순,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 제21차 교수회 평의회 회의 결과(2024.11.20.)
-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참고] 교수회장 선거 일정
- 입후보 등록기간: 12/3(화) ~ 12/4(수) 10:00-17:00
- 입후보자 공고: 12/5(목)
- 공보 배포(지상토론문 포함): 12/10(화) 온라인배포(e-mail)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12/11(수) ~ 12/12(목) 10:00-17:00
- 후보자 합동연설회: 12/18(수) 13:00(정기총회), 교수회관 2층
- 온라인투표*: 12/18(수) 14:00-15:00

*온라인투표 절차
카카오톡 수신(카카오톡이 없는 경우 자동문자 발송됨)→투표용 모바일 웹사이트에 접속→개인정보 동의 및 휴대폰 번호로 본인 인증→투표

※ 카카오톡, 문자 모두 수신 불가할 경우, 12/12까지 교수회에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별도 이메일 투표 신청

※ KORUS에 등록(2024.11.15.기준)되어 있는 휴대폰번호로 투표링크를 발송할 예정이므로 휴대폰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2/12까지 교수회에 유선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교수회: 051-510-1224~5 / facultycouncil@pusan.ac.kr

제19대 교수회 발송문

[2024년 12월 4일]

제19대 교수회 긴급 평의회 개최 알림

1. 일시: 2024년 12월 4일(수) 15:00
2. 장소: 교수회관 2층 교수회 회의실
3. 안건: 시국선언 성명문 채택

※ 평의원 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교수님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제19대 교수회 발송문

[2024년 12월 4일]

부산대학교 교수회 시국선언 성명문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흠결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현대사를 거치며 정착된 대한민국의 평화적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폭거로, 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역사의 발전을 퇴보시켰다.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며, 국가의 존립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대학 교육 발전에 앞장설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고, 헌법 가치의 엄중함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도록 애쓸 것이다.

부마항쟁의 정신을 계승한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2024년 12월 4일

부산대학교 교수회

제19대 교수회 발송문

[2024년 12월 4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시국 성명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빠뜨려 주권자인 국민의 자긍심과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결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자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그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국교련은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헌법과 법치주의를 교육적 차원에서 성찰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교육하는 것은 학계의 중요한 책무이다. 국교련은 민주주의 가치를 거스르는 행위가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국가의 존립 기반을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정의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할 것이다.

국교련은 어떠한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교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학문의 전당이자 국가 발전의 동반자로서 이번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결연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24. 12. 4.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원대학교 교수회장 우흥명
경상국립대학교 교수회장 민병익
경인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김철호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조혜영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이대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장 최성범
국립공주대학교 교수회장 박지훈
국립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장 조혜영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교수회장 장진호
국립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장 정석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수평의회장 임남균
국립부경대학교 교수회장 정석호
국립안동대학교 교수회장 안태창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장 류병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회장 정제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장 강은숙
국립한밭대학교 교수회장 윤 린
대구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주현준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이광현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교수평의회장 김원필
서울대학교 교수회장 임정묵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회장 김선형
인천대학교 교수회장 박정준
전남대학교 교수회장 김재관
전북대학교 교수회장 김동근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송지환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양창용
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최수남
청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강병직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회장 배성제
충남대학교 교수회장 최인호
충북대학교 교수회장 박종진
한경국립대학교 교수회장 공홍식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이용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교수협의회장 변지원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평의회장 안성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부산대학교 교수회장 김정구

이 땅의 모든 교육자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국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음을 전합니다.

제19대 교수회 발송문

[2024년 12월 12일]

안녕하십니까, 교수회입니다.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가 아래와 같이 있사오니,
아래 내용 및 첨부된 개정안 내용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12/17(화)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1. 의안번호: 6225
2. 발의자(대표): 정을호 의원
3. 발의일자: 2024. 12. 5.
4. 제안이유: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개별 대학별 대학평의원회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행: 한 구성단위의 수가 평의원 전체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정안: 한 구성단위의 수가 평의원 전체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문제점〉
- 헌법에서 법률로 보장하는 대학 교수의 자율과 참여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참고]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구성(총 20명)
1) 교수회가 추천하는 교수 대표 9명
2) 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직원 대표 3명
3) 조교회가 추천하는 조교 대표 2명
4)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 대표 4명
5) 동문단체가 추천하는 동문 대표 1명
6) 강사단체가 추천하는 강사 대표 1명

문의사항은 교수회 사무실(T.510-1224~5, facultycouncil@pusan.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9대 교수회 발송문

[2024년 12월 17일]

2024년 전체교수회 정기총회 및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안내

1. 일시: 2024년 12월 18일(수) 13:00 ※ 온라인투표 14:00-15:00

2. 장소: 부산캠퍼스 교수회관 2층 교수회 라운지

3. 주요내용
  1) 2024년 교수회 사업보고
  2) 안건
    - 감사선출
    -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
    - 부산대학교 교수회 규정 개정
    - 제20대 교수회장 선출

4. ZOOM 중계
  - 참여링크: http://pusan.zoom.us/j/6882949853?pwd=eFZUUVI2cEJQK0V3cTRFM3QzNEJVQT09&omn=89639004681
  - 회의 ID: 688 294 9853
  - 암호: 1224
  - ZOOM으로 참석시 "성명/학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1) 후보자 연설: 정기총회 시(12/18(수) 13:45 예정)
  2) 투표시간: 12/18(수) 14:00-15:00
  3) 입후보자

소속	직급	성명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용재

4) 투표방법: 찬반투표

① 카카오톡으로 투표링크 수신 ※ 카카오톡이 없는 경우 자동문자 발송됨

② 투표용 모바일 웹사이트 접속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④ 로그인(성명 및 휴대폰 번호 입력)

⑤ 인증번호 입력 ※ 카카오톡으로 인증번호 수신(카카오톡이 없는 경우 문자)

⑥ 투표

6. 문의처: 교수회 051)510-1224~5



제19대 교수회 발송문

"Arise PNU, 같이 더 높게"

부산대학교

수신 부산대학교총장

(경유)

제목 대학평의원회 제22차 심의 결과 미반영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1. 2025. 1. 14.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 부결되고, 2025. 1. 21. 교무회의에서 심의 가결된 『대학평의원회 의안번호 제52호 단과대학급 (가칭)학부대학 신설(안)』(이하 『안』) 관련입니다.

2.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와 「부산대학교 학칙」 제29조에 근거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학의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3.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11조제2항에서는 총장으로 하여금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의 반영 내용을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공문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 부결된 『안』이 대학평의원회에 그 반영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설득 없이 교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4. 심의과정에서 심의기구의 구성원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면, 기권이 더 책임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기권의 정당성'이라는 관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심의의 대상이 되는 안건을 작성한 주체가 심의기구의 구성원에게 "심의 안건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5. 「부산대학교 학칙」 제29조제4항제3호에서 '대학(원), 학과(부)나 전공의 설치와 폐지'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 부결된 『안』에 대하여 그 내용이 변경되어 교무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후 최종 확정되는 것이 허용된다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는 형식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 1. 14.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

제19대 교수회 발송문

부결된 『안』과 2025. 1. 21. 교무회의에서 심의 가결된 『안』이 변경된 것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행위입니다.

6. 대학의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내기구로서 대학평의원회의 위상을 되찾고 대학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 『안』에 대한 그간의 사실관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붙임 1. (증빙자료) 단과대학급 (가칭)학부대학 신설(안)의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와 교무회의 회의자료 비교 1부.

붙임 2. (참고자료) 2026학년도 학부 학생정원(첨단학과) 순증 신청을 위한 정원 조정 계획(안)의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와 교무회의 회의자료 비교 1부.

붙임 3. (참고자료) 제10대 대학평의원회-제19대 교수회 평의회 심의안건 중 원안부결 처리 현황 1부. 끝.

대학평의원회 의장

시무원	현경운	대학평의원회 의장	2025.01.31. 김정구

협조자

시 행 대학평의원회-139 (2025.01.31.) 접 수 ( )

우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 http://faculty.pusan.ac.kr

전화번호 051-510-1225 팩스번호 / wow0908@pusan.ac.kr / 공개

"대한민국 미래의 새로운 길, 부산대학교"

특집: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2024년 11월 14일] 공고 제2024—03호

부산대학교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입후보자 공고

부산대학교 제20대 교수회장 선거의 입후보자와 선거일 및 투표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일시: 2024년 12월 18일(수) 14:00~15:00 ※ 교수회 정기총회 13:00 예정

2. 투표 방법 및 절차

가. 투표방법: 온라인투표(찬반투표)

나. 투표절차: **카카오톡 수신**(카카오톡이 없는 경우 자동문자 발송됨)→투표용 모바일 웹사이트에 접속→개인정보 동의 및 휴대폰 번호로 본인 인증→투표

※ **카카오톡, 문자 모두 수신 불가할 경우**, 12/12까지 교수회에 별도 이메일 투표 신청

3. 개표소 명칭 소재지

명칭	소재지	비고
부산대학교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개표소	부산캠퍼스 교수회관 2층	전자개표

4. 교수회장 입후보자 명단

기호	성명	소속
1	이용재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2024. 12. 5.

부산대학교 제20대 교수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공보

1. 인적사항



소속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직급	교수
성명	이 용 재		

2.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1983 ~ 1988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	학사
1992 ~ 1994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	석사
1995 ~ 2001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	박사

2. 경 력

기 간	기 관	직위, 직급
2005 ~ 2009	부산광역시 교육청	원북원부산운영위원장
2006 ~ 2008	교육인적자원부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8 ~ 2010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과장, 대학원 전공주임
2010 ~ 2011	뉴욕 롱아일랜드대학교 문헌정보대학원	객원교수
2012 ~ 2013	한국도서관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3 ~ 2015	부산대학교 교수회, 평의회	연구·홍보간사, 평의원
2017 ~ 2019	부산대학교 교수회, 평의회	기획간사(위원장), 평의원
2017 ~ 2020	한국문헌정보학회	부회장
2018 ~ 2020	부산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
2020 ~ 2022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과장, 대학원 전공주임
2022 ~ 2024	부산대학교 도서관	도서관장
2022 ~ 2024	부산대학교 기록관	기록관장
2022 ~ 2024	부산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센터장

4. 연구업적

[논문]

- 2002, 디지털시대 대학도서관의 경영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4호, 단독, pp.293-309.
- 2009,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한 책, 한 도시'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3호, 단독, pp.5-23.
- 2011, 공공도서관 어린이서비스 마케팅 전략: 미국 공공도서관의'가족장소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 단독, pp.417-440.
- 2013, 공공도서관의 취업·사업정보 제공에 관한 연구: 미국 공공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3호, 단독, pp.211-234.
- 2016, 대학의 자유와 자율에 대한 성찰: 부산대학과 파리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동서인문, 제6호, 단독, pp.217-242.
- 2024,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분석: 루브릭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55권 제1호, 공동(교신), pp.99-122.

[단행본]

- 2002, 주제화를 통해본 한국 대학도서관의 현단계, 한울, 단독, 268쪽.
- 2013, 도서관인물 평전, 산지니, 단독, 299쪽.
- 2020, 도서관정보센터 경영론, 청람, 공동, 333쪽.
- 2021, 도서관 경영전략과 마케팅, 청람, 단독, 312쪽.



소 견 서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교수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이용재입니다.

저는 제13대, 제16대 교수회에서 기획·홍보 임원으로 일하였습니다. 두 번의 교수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교수님들과 소통하고 교수회 및 평의회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대학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저지, 대학의 건강한 학문공동체를 침해하는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한 많은 문제를 두고 대학의 공론을 형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민간 병원들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도서관장, 기록관장, 외국학술지지원센터장을 맡아 우리 대학의 학문활동 지원, 각 캠퍼스 도서관 공간의 개선, 대학역사관 조성 등을 위해 힘쓰고 실현하였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대학의 대내외 환경도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학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고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교육정책 및 조처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국내 대학들은 이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광복 후 최초의 종합대학교이고 대학자율화의 최후 보루였던 부산대학교조차 같은 프레임 속에 수동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기에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교수들의 공론을 모으고, 교육부 주도의 성책 밀어붙이기에 대응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소견을 제시합니다.

1. 교수회가'교수의회'로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대학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본부에 협력할 수 있는 일은 협력하고, 비판이 필요할 때는 교수님들의 집단지성을 모아 제대로 비판하고, 생산적인 방향을 찾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2) 교수회 차원에서 교육정책 및 연구에 대한 '교육연구위원회', 예산회계에 대한 '재정위원회', 교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권익복지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각종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특위(TF)를 만들어 건강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무전공제 시행, 전임교원의 시수 문제, 국립대 예산 확보 등

2. 건강한 학문공동체를 수호하고 부산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1) 교육자, 연구자로서 교수님들의 위상과 품격을 존중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부산대다움'을 지키고 키워나가겠습니다. 부산대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학내 다양한 공간에서 학술, 교육, 봉사, 공론, 교류의 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정부(교육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응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교수회 차원에서 연구·개발하고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학문 분야를 아울러서 교수들의 공론장을 만들겠습니다. 국립 부산대 차원에서 보편적 인류문명에 기여하고 학술 및 인재양성 정책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선도하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3. 교수님들의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1) 교수님들의 의료, 건강증진, 급여외 혜택, 재정관리 등을 위해 살펴보고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력을 이끌어 내고, 전문가 특강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2) 국립대 교수 봉급체계에 대해 지난 교수회 및 국교련(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차원에서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제20대 교수회가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 아름다운 캠퍼스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1) 부산대 모든 캠퍼스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2) 금샘로 개통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본부가 부산대 구성원 총의에 의한 동의 여부를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5. 소통하는 교수회가 되겠습니다.

1) 교수회보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교수회 활동에 대한 교수님들의 인식을 높이고 학술광장의 격조 높은 지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교수님들이 교수회관을 사랑방처럼 일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다양한 행사(연주회, 등산 등), 학술 세미나로 초대하겠습니다. 원로, 중견 교수님들은 물론 젊은 교수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모저모로 살피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지상토론문

1. [부산대 현안 진단과 대안]

Q. 그 동안 부산대 본부가 추진해온 여러 사업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점과 교수회장으로서 우선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A. 부산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이 현 정부의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지침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이 더욱 파행적인 난맥상을 겪고 있습니다. 현 시대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 지방소멸, 대학서열화와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파행 교육, 인구절벽 등의 난제에 직면하고 이에 수반하여'개인의 각자도생','출발선부터의 불평등'등 각종 사회적 병리를 겪고 있습니다. 현 교육부가 재정지원 및 혁신을 운운하며 내세우는 각종 사업은 지방 살리기, 국립대 육성 등과 같은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현장의 현실과 의견을 도외시하는 현 교육부의 일방통행적 줄세우기 정책과 지침은 지역대학 구조조정의 잣대로 작용하면서, 각종 사업의 일방적 시행을 통한 불평등 및 격차 심화, 급변하는 유행에 편승하는 교육 환경 조장 등 파행을 일으키며 대학의 학문과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 본부도 이러한 교육부의 프레임 속에 수동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부산대 교수님들의 총의를 받아 교수회장이 된다면, 교수회 차원에서 현 정부(교육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응하여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건강한 대학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수회 차원에서 대학 교육 및 연구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설조직으로'(가칭)교육연구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회의, 세미나 등 공론장을 조성하여 전 학문분야를 아울러 교수님들의 공론이 피어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건강한 대안을 찾아 본부에 제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복 후 최초의 종합대학교이자 대표적인 국립대이며 수도권의 대척점에 있는 명문대학인 부산대 차원에서 교육 모델을 찾고'부산대다운'대학교육 발전 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본부는 정부 지원과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보이는 성과를 내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교육부가 제시하는 프레임에 따라가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 본부는 교육부의 교육정책과 지침에 내재한 근본적 문제나 발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깊은 성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수회가 그러한 근본적 성찰과 건강한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현안 중 대표적인 예는 전공자율선택제(무학과제도), 글로컬대학 사업,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시행의 장점과 단점, 장기적 영향과 폐단 등에 대해서는 교수회, 국교련(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전국교수연대회의 등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성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회장이 된다면, 새로운 전환기에 이러한 논의와 대안을 수렴하고 교수회 차원에서 부산대에서의 공론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 본부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학 자율성의 신장]

Q. 대학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고 국립대학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A.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의 자유정신, 대학의 독립성과 공공성, 학문의 자유, 국가와 세계를 위한 지성의 탐구 정신, 근현대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등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현대사회에 들어와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기본으로 창조적·비판적 지성인 자유를 형성하였습니다. 대학은 본질상 연구·교육·봉사를 사명으로 하는 지성인의 공동체입니다. '대학 자율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을 묻는 질문을 대하니, 뇌리를 스치는 시기와 사건이 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입니다. 그 골자는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단과대 학장직선제 폐지, 재정회계통합 운영 등입니다. 이 방안에서의 사실상 목표는 총장직선제 폐지였습니다. 재정지원을 미끼로 하여 각 국립대에 직선제 폐지를 평가 요소로 반영하여 지원금을 차등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2012년에'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총장간선제를 채택하면 재정지원과 교수 정원 배정에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재정 의존 비율이 높은 국공립대에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 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교육부는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이면서, 직선제 폐지 시한을 제시하며 거부할 경우'지원금 전액 환수'라는 최악의 칼까지 꺼내 들어들었습니다. 각 대학이 너도나도 교육부와'국립대 선진화 방안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육부의 강압에 총장 직선제를 포기하였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사탕도 꺼내어 제시했습니다. 대학평가 지표를 통해 논문 실적과 보수를 연계한'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여 교수들을 잠재우려 하였습니다. 이러한'성과급적 연봉제'는 상호약탈적 경쟁 시스템으로 교수사회를 분열하게 하고 건강한 학문공동체의 기반을 침해하는 기제로 작용하였습니다. 한국 대학은 이러한 교육부의 강요와 시장논리에 속절없이 무너지고'대학의 정체성'이 바래지고, 대학의 자유와 학문정신, 교수들의 교육자로서의 역할은 땅에 떨어지고 대학은 생산성과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국립대가 다 무너지고, 부산대만이 최후의 보루로 남았습니다.

2015년 8월 17일 오후 3시경 故고현철 교수께서 부산대 본관 4층에서"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셨습니다. 고현철 교수님은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고, 교묘하게 민주주의는 억압되어 있는데 우리의 인식은 "무뎌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으로 상황은 반전되었고, 부산대를 비롯하여 전국의 국립대학은 직선제를 회복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 대학사회에서 대학자율성은 정부의 외압을 받아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재정지원을 미끼로 정부(교육부)가 일방적인 정책과 지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 자율성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과 교수의 정체성과 역할을 성찰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 자율성을 지켜낸 최후의 보루인 부산대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교수회장이 된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고 국립대학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대의 빛나는 자유정신,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온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 교수사회의 무뎌지는 의식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요즈음 시대와 교육의 현실에 자괴감을 느끼는 교수님들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교육과 연구, 봉사의 본질로 돌아가는 학문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수회가 교수님들의 진정한 대의체로서'교수의회'로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본부에 협력할 수 있는 일은 협력하고, 비판이 필요할 때는 교수님들의 집단지성을 모아 제대로 비판하고, 생산적인 방향을 찾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교수회 차원에서 예산회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투명한 예산관리와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가를 점검하는'재정위원회', 교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권익복지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각종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특위(TF)를 만들어 건강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국립대 지원에서 사업비 형태가 아닌 일반 재정지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 현 정부의 무전공 입학제 강요에 대한 대안, 기초학문·지역에 맞는 학문·첨단연구에 대한 부산대 교수님들의 공론을 모아 부산대다운 모델 제시하기 등입니다.

3. [교육부와 국립대의 관계]

Q. 교육부의 대학평가사업 및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교육부와 국립대학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A. 교육부 대학평가사업 및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위에서 답변한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대학 자율성의 훼손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본연의 교육과 연구, 봉사의 가치를 살펴보지 않고, 자본과 시장경제의 논리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돈다발을 흔들며 줄을 세우고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도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모습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근현대 대학교육이 중세 대학의 전통 위에 시민사회의 합의를 거쳐 성숙하였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 사회는 급속한(달리 말하면 졸속한) 근대화를 거치며, 급격한 경제성장이 일어났으며, 교육제도는 주로 미국식 교육방식의 도입, 국내 대학과 학문세계는 전통 학문과의 단절 및 서구 학문의 이식 등을 거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의 한국 사회처럼 정부(교육부)가 국가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며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창의적이고 자유정신에 바탕을 둔 대학의 학문활동 및 인재양성을 저해하는 것은 세계 사회에서도 부끄럽고 낮은 수준입니다. 근본적으로 교육부가 대학평가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배하는 구조가 교정되어야 합니다.
본 답변에서는 한국 대학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제가 교수님들의 총의를 받아 교수회장이 될 경우, 교수님들의 집단지성과 지혜를 모아 구체적인 각론과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무전공제 등에 대해, 인문·사회·자연 과학 등 기초학문의 장기적 피해가 없도록 살피고, 모든 학문과 교육에 대한 실제적 사회적 수요와 가치, 새

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을 위한 방향을 살펴서 본부가 건강한 방향과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여러 방안과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부산대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소속 교원의 숫자를 늘리고, 기초 학과의 정원은 지키거나 늘려서 모든 학문·학과의 학생들이 기초교양 및 인문·사회·자연 지식과 창의성, 예술 심미안을 갖추도록 하고, 각 분야를 아울러 교수들의 협업 봉사, 합동 수업(팀티칭 등), 학제간·융복합 연구, 도서관 아날로그·디지털 공간과 서비스, 도서관을 통한 전세계의 양질의 다양한 정보자원 활용을 통한 학생 교육,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등이 제대로 일어나는 방향이 '부산대다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국립대학의 관계는 현단계에서"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대학교육의 내실화, 국제화, 국립대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국립대학의 위상 강화), 창의성과 다양성을 키우는 대학교육, 지역사회와 국가, 지구촌에 응답하는 대학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부산대 발전 방향]

Q. 부산대의 명성이 과거와 다르게 실추되고 있습니다. 부산대 교수님들이 해야할 일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A. 부산대는 광복 이후 최초의 종합대학교입니다. 1945년 10월 경상남도 학무과장 윤인구와 선각자들은 국립대학 설립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윤인구는 불교계의 도움을 이끌어내고, 민간 기부금과 적산 청산금을 합쳐 문교부에 납부할 1,000만원의 대학설립기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946년 5월 15일 한인 문교부장과 미 군정고문관의 공동성명으로 된 대학설립인가를 받아 국립부산대학교 설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일제 때 경성제대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따라 해체되고,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대한 법령 공포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로 새로이 설립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종합대학교로 설립인가된 일자는 1946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므로 부산대학교 광복 이후 최초의 국립대학교일 뿐만 아니라 국립과 사립을 아울러 최초의 종합대학교입니다. 부산대학교는 3·1운동 이후의 민립대학설립운동, 광복 이후 지역사회의 염원과 시민의 참여, 민간기금의 국가 헌납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대학교입니다.
부산대는 광복 이후 천하의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민족의 힘으로 만든 대학이며, 그 염원을 모아 국가에 헌납하고 만든 국립대학입니다. 그 후 1953년 부산대학교는 종합대학교로 재승격하고 효원(새벽벌) 캠퍼스시대를 열면서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8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부산대학교는 각 분야에서 섬기는 리더로서 활약하는 수많은 인재를 키우고 국내외 연구의 메카로 성장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의 건학정신, 각 학문분야의 약진과 성장, 국내외 동량의 배출,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공헌, 서울대가 법인화된 지금 대표적인 국립대로서의 위상, 부산대에서 평생을 바쳐

묵묵히 교육·연구·봉사를 하시는 교수님들, 국내외에서 탁월한 연구업적과 교육 역량을 가지고 초빙되는 신임 교수님들을 보면, 부산대는 한국 최고의 대학이자 세계적 명문대학이 될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망국적 현상인 과도한 서울 집중(이른바 in서울 대학 집중), 전국 지역에서의 건실한 일자리 부족(대기업 본사의 서울 존치), 지역의 인구 소멸, 인구절벽 등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고, 각종 병리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이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출발선상부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소멸 위기와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과도한 인구와 삶의 질 저하로 사람들은 각자도생하며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2010년 이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역 대학을 줄세우고 교수들에게 상호약탈식 연구 경쟁을 하도록 하고 총장직선제 등 대학의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부산대학교 교수님들은 평생 묵묵히 각자의 학문분야에서 제자들을 키우고 넉넉하지 않은 봉급으로도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지성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교수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까지도 교수로서의 자부심, 자존심, 교육자로서의 긍지, 지식인·지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손상이 가고, 많은 교수님들이 자괴감을 느끼며 할 말을 아끼고 생활인·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대 교수님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근본적으로 교육자, 학자, 지성인으로서 교수님들의 자부심과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 총장과 본부, 교수회가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대학교육의 본질과 교수의 역할을 회복하고, 격변하는 한국 및 세계 사회에서 교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 나아가 세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교수회가 먼저 성찰하고 건강한 대안을 본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대가 가진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프라, 정부의 국립대에 대한 책임, 국립대로서의 인재 양성 및 연구 수행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교수님들에게 대한 연구비 지원을 포괄적으로 현행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학부 및 대학원 인재 양성에도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예컨대, 별다른 지원 없는 연구를 수행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해 현행의 사후 보상 제도를 개선하여 KCI, A&HCI, SSCI, SCOPUS, SCI 등 저널에 실린 논문에 대하여 현행 2배 이상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수님들이 인문·사회·자연·공학·예술 등 각 학문분야에서 묵묵히 연구하신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생을 연구와 후학양성에 애쓰신 교수님들이 정년을 1년 앞두었을 때는 시수 감면을 통하여 강의의 양적 부담을 덜어드려서 더욱 질 좋은 교육과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임 교원의 시수 감면을 포함한 제반 사안을 잘 챙겨서 살펴보고 교수님들의 집단지성을 모아 건강한 대안을 본부에 제시하고, 부산대 교수님들이 교육자, 학자, 지성인으로서 또한 부산대 교수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당선인 공고

[2024년 12월 17일] 공고 제2024—04호

부산대학교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당선인 공고

부산대학교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명	소속
당선인	이용재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2024. 12. 18.

부산대학교 제20대 교수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제20대 교수회장 당선자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교수회장 선거 당선인 이용재입니다.

저는 제13대, 제16대 교수회에서 기획·홍보 임원으로 일하였습니다. 두 번의 교수회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교수님들과 소통하고 교수회 및 평의회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성과급적 연봉제 강제 시행, 총장직선제 폐지 등을 포함한 학문공동체와 대학자율성을 훼손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대학의 공론을 형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민간 병원들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도서관장, 기록관장, 외국학술지지원센터장을 맡아 우리 대학의 학문활동 지원, 각 캠퍼스 도서관 공간 개선 등을 위해 힘쓰고, 본관 1층에 대학역사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교수회장 선거에서 수많은 교수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아낌없는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교수회에 대한 교수님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교수님들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광복 후 설립된 최초의 종합대학교입니다. '부산대다운' 교육 모델을 찾고, 부산대 교수회가 교수님들의 명실상부한 대의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고, 힘과 지혜를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교수님들께서 선출하시는 평의원들로 구성된 교수회 평의회의 건실한 운영, 교수회 평의회의 상임·운영위원회의 상설 기구화, '부산대다운' 대학발전 및 교육 방향 모색, 교수님들의 복지 증진, 아름다운 캠퍼스 보호, 교수회 활동 홍보, 교수님들과의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20대 교수회가 수행할 역할을 생각할 때, 교수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저는 교수님들의 뜻을 모으고, 각 분야 교수님들과 손잡고 연대하여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수님들께서 우리 부산대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판이나 건의가 필요할 때 가차없이 해 주십시오. 교수님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제가 입후보 소견과 선거 연설에서 말씀드린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 12.

제20대 교수회장 당선인 이용재 교수 올림



국교련 하반기 주요 활동

Ⅰ. 교육공무원법률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 제출

교육부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관련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의안번호	발의자(대표)	발의일자	주요 내용
1545	김영호 의원	2024.7.9.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교원, 직원 및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 선정 방식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2024.7.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각실과, 고등교육기관전체,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부), 중앙부처(원) 및 조정실, 중앙부처(위원회), 중앙부처(처), 중앙부처(청)

행정사무관 김영현 교육연구관 이준호 행정사무관 구현규 대결 07/11 인재양성정책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인재양성정책과-5935 (2024.07.11.) 접수 교무처-4213 (2024.07.12.)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어진동, 교육부)정부세종청사 14동 / https://www.moe.go.kr

전화 044-203-6853 /전송 044-203- / smartwise@korea.kr / 공개

국민과 대학을 위한 정교수 지적공동체		보 도 자 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배포시기	2024.7.16.(화)		상임회장	김정구 부산대 교수회장
보도시기	배 포 즉 시		연 락 처	010-5093-3733
			이 메 일	newknupa@naver.com

대학총장 임용추천자 선거, 학생의 투표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 반대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공동 발표 -

지난 7월9일 김영호 의원(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립대 총장선거에서 학생을 포함해 교원,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이 협의를 거쳐 투표 반영 비율을 정하도록 하되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교원, 직원 및 학생별 각 투표율이 5%를 초과하지 않으면 총장 임용추천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상임회장 김정구 부산대 교수회장)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붙임과 같이 반대입장문을 공동발표하였다.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 그리고 공립대학 총 40개교의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 사안에 대해 대학 평교수의 의견을 수렴해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교육전문가의 식견과 민의를 반영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붙임1. 대학총장 임용추천자 선거에서 학생의 투표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교련 입장

- 1 -

붙임1. 대학총장 임용추천자 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교련 입장문

1. 2024. 7.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정하는 선거(이하 "총장추천자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총장추천자선거에서 여전히 **교직원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총장 임용추천자 선정 방식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2.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총장추천자선거의 성격"**과 **"대학의 의사결정에서 교원·학생·직원 공동결정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이해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총장추천자선거에 교원과 학생 및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총장후보자 선출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교원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하다"** (헌재 2023. 5. 25. 2020헌마1336 결정).

   따라서 **"교원이 주축이 되는 총장추천자선거"**는 결코 대학구성원 간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또 필요한 일로서 **법률에 의하여 훼손됨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3. 대학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연구와 고등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그리하여 헌법은 특별히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의 주체는 교원이다. 학생은 연구와 교육의 수혜자다. 직원은 교원의 연구 및 교수활동과 학생들의 대학에서의 수학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교원·학생·직원은 모두 대학의 구성원이다. 그러나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은 다르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도 다르다. 대학의 의사결정에서 오로지 교원이 모든 결정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안에 동등한 결정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대학의 의사결정에서 교원·학생·직원의 공동결정이 필요한지(예컨대, 교원 채용에서 학생과 직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없다), 공동결정을 한다면 구성원에게 동등한 참여권을 보장할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안이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공동결정을 허용하더라도 교원의 주도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대학의 의사결정에서 기계적 평등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일 수 없는 이유는 대학의 본질과 헌법적 기능에 따른 구성원의 지위·역할과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4.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학 구성원의 지위·역할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명시적으로 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2024년 7월 16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원대 교수회장 우흥명	경상국립대 교수회장 민병익	경인교육대 교수협의회장 김철호
공주교육대 교수협의회장 조혜영	광주교육대 교수협의회장 이대현	국립강릉원주대 교수회장 최성범
국립공주대 교수회장 서정호	국립군산대 교수평의회 의장 조혜영	국립금오공대 교수회장 장진호
국립목포대 교수평의회 의장 정석원	국립부경대 교수회장 정석호	국립순천대 교수회장 한귀현
국립안동대 교수회장 안태창	국립창원대 교수회장 김경성	국립한국교통대 교수회장 정제순
국립한국해양대 교수회장 강은숙	국립한밭대 교수회장 이준우	대구교육대 교수협의회장 주현준
부산교육대 교수협의회장 이광현	부산대 교수회장 김정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평의회 의장 김원필
서울대 교수협의회장 임정묵	서울시립대 교수회장 한인섭	인천대 전체교수회장 옥우석
전남대 교수회장 김재관	전북대 교수회장 김동근	전주교육대 교수협의회장 송지환
제주대 교수회장 양창용	진주교육대 교수협의회장 최수남	청주교육대 교수협의회장 강병직
춘천교육대 교수회장 배성제	충남대 교수회장 최인호	충북대 교수회장 박종진
한경국립대 교수회장 공홍식	한국교원대 교수협의회장 이용기	한국방송통신대 전교협 회장 변지원
한국체육대 교수평의회 의장 안성환		

- 3 -

II.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 의견검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국교련 의견검토(~9.4)

▶▷ 검토자료 정리 : 박태현 국교련 정책위원장

1. 현행 지방대학육성법은 교육부장관이"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시·도지사는 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체제입니다.그런데 지방대학육성법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부는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체제입니다. 즉 개정법률안은 지방대학법의 계획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시도합니다.

2. 관련하여 김민전 의원은 RISE 관련 위원회(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 지방대학육성법개정안과 고등교육법개정안은 연계돼 있습니다.

3. 두 개정법률안은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두 개정안 자체의 입법완성도가 상당히 높고 또 두 안 간의 유기적 연계도 잘 이뤄져 있습니다. 내용 또한 교육부의 그간 정책방향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교육부에 의한 청부입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김민전 의원이 최고위원이라는 점에서 두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대해 국교련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임의장님과 상의하여 9월 국교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Ⅲ. 국회 제22대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간담회 참석

○ 개요

일시 : 2024년 9월 25일 15시

- 장소 : 국회 교육위원장실 본관 520호
- 참석자 : 김영호 위원장, 김병운 보좌관, 국교련(5명)

□김정구(국교련 상임회장/부산대 교수회 회장) □변지원(한국방송통신대 교수회 회장)

□안성환(한체대 교수평의회 의장) □정제순(한국교통대 교수회 회장)

□김지현(국교련 사무총장/부산대 교수)

○ 간담회 요약

- 국교련 참고자료 발표

□지방대학의 중요성과 위기원인과 수도권 집중문제

□지방대학 발전방안 : 창의와 자율 보장,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평가시스템 구축, 국립대학법안 제정, 1인당 공교육비 확대 등

- 글로컬대학과 라이즈 사업의 우려와 대책

※ 선진적 고등교육 국가전략 세미나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24.9.25.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국교련 참석자 : 김정구 상임회장, 최인호 공동회장, 유진상 고문

Ⅳ. 정책 세미나와 간담회

○ 정책 세미나 개요

- 일　시 : 2024년 9월 27일(금) 17:00
- 장　소 : 국립부경대학교 본관 208호 회의실
- 발제자 : 한국공학대학교 박철우 부총장



○ 정책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4년 10월 25일(금) 17:00~
- 장　소 : 한국교원대학교 미래도서관 202호 회의실
- 발제자 :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Ⅵ.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 법률안] 검토의견 제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 교육부장관(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제목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1. 관련 :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의안번호 5056)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상임회장 김정구 부산대 교수회장)는 김대식 의원과 김준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 그리고 공립대학 총 40개교의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 사안에 대해 대학 평교수의 의견을 수렴해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교육전 문가의 식견과 민의를 반영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붙임1.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제출자 2024-11-15 진우섭

시행 국교련27-063 (2024-11-15) 접수

우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장전동) 교수회관2층 / http://www.nupa.kr

전화번호 051-510-1396 팩스번호 051-515-2236 / newknupa@naver.com / 비공개(6)

Ⅶ. 제2차 정책 심포지움 개최

제27대 국교련 제2차 정책 심포지움

일시	2024년 11월 22일(금) 16시~
장소	제주라마다시티호텔, 그랜드 볼룸 *주소: 제주시 중앙로 304
주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제주대학교

행 사 안 내

16:00~16:10	개 회. 김정구(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축사1.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축사2. 정대화 상임위원(국가교육위원회)
16:10~16:20	기조강연. 김대식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16:20~18:00	<발제 및 토론> ▸발제1. **"국립대학법 연구"** 윤수정(강원대 교수)·박종원(부경대 교수) ▸토론1. 최인호(충남대 교수회장) 김대경(제주대 교수) ▸발제2. **"고등교육법 전면개정안 연구"** 박태현(강원대 교수, 국교련 정책위원장) ▸토론2. 길민서(교육부 규제혁신추진단 사무관) 김동근(전북대 교수회장)
18:00~	기념사진 촬영 및 만찬

KNUPA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ssociations





고현철기념사업회 소식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보도자료

Arise PNU 같이 더 높게

보도일자	배포 즉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배포일자	2024. 8. 16.(금)
자료문의	임상택 사단법인 고현철교수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 051) 510-2023
	이지영 사단법인 고현철교수기념사업회 간사 ☎ 010-8993-8605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 9주기 추도식 개최

- 16일 교내 10.16기념관서 행사…사단법인 고현철교수기념사업회 출범 후 첫 추도식
- 송기인 사업회 이사장 "어두운 시기에 지식인의 역할과 본분 다시 한번 되새기길"
- 최재원 부산대 총장 "꺼지지 않는 대학 자율화·민주화 불꽃, 그 정신 잊지 않을 것"

□ 사단법인 고현철교수기념사업회(이사장 송기인)는 16일 오전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에서 총장직선제, 대학과 사회의 민주화를 촉구하며 투신한 「故 고현철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9주기 추도식」을 개최했다.

□ 이날 추도식은 추도 묵념과 법인 설립 경과보고, 故 고현철 교수 소개, 최재원 부산대 총장,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김정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최갑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송기인 사단법인 고현철교수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추도사 순으로 진행됐다.

○ 이어, 국어국문학과 홍정빈 학생회장이 故 고현철 교수의 시집 『평사리 송사리』에 수록된 '마당 깊어 괴로운'을 추모시로 낭송했고, 음악학과 학생들이 추모공연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인문대학 추모조형물 앞으로 이동해 묵념과 헌화를 했다.

○ 추도식에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

연합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산대 민주동문회, 부산작가회의 등에서도 함께해 고인을 기렸다.

□ **송기인 (사)고현철교수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날 추도사를 통해 "공동선을 잃어버린 세상, 극단적 이기주의와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이 판치는 세상, 갈수록 깊어지는 양극화 등 우리 사회는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칠흑 같은 어둠에 빛이 되고자 했던 故 고현철 교수님을 추모하며 어두운 시기에 지식인의 역할과 본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을 당부했다.

○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추도사에서 "꺼지지 않는 대학 자율화·민주화의 불꽃이 되신 교수님의 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아름다운 인성을 지닌 학생을 길러내고 탁월한 지성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여 대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사단법인 고현철교수기념사업회**는 올해 1월 11일 창립총회를 갖고 4월 18일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5월 10일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올해 9주기 추도식은 기념사업회 출범 후 개최한 첫 추도식이다.



빼기 건강법 -K 교수님께

윤영주
한의학전문대학원



K 교수님,

걱정하던 종합 검진 결과가 괜찮게 나왔다고 하시면서 환한 얼굴로 이제부턴 금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에 저도 참 기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해지는데, 주위 분들을 보면 건강을 위한 실천이 쉽지는 않은 듯합니다.

가장 먼저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들을 챙겨 드시는데 이게 다다익선이 아니란게 문제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합성 영양제로 과잉 복용하면 비타민 A는 암 발생을 높이고, 칼슘제는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영양제들도 마찬가지구요. 또 교수님께서도 물 많이 마시는 것이 힘들다고 물 대신 녹차를 계속 드시다가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 고생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제 친구 한 명이 갱년기에 좋다는 주변의 권유로 석류즙을 열심히 먹다가 위경련이 일어나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체질에 따라 맞는 것이 다 다른데 남들의 좋다는 말을 듣고 유행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다가 문제가 생겼던 거지요.

몇 달 전 시민 대상 강연에서 제가 CT 너무 많이 찍으면 오히려 방사능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많아진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도 맹신해선 안 된다고 한참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뿐이면 도대체 뭘 하란 말이냐"고 질문을 하시더군요. 검진이던, 약 복용이던 건강기능식품 챙기는 것이던 뭐든지 자꾸 더하는 더하기 건강법이 아니라 우선 해로운 것을 하지 않는 빼기 건강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흡연, 과식, 과음, 과로하지 않는 것, 누구나 잘 알지만 지키기는 쉽지 않지요.

다음으로 건강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교수님께선 먼저 일 욕심부터 좀 내려 놓으셔야겠지요. 둘째는 적절한 운동과 휴식의 균형,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마라톤을 시작하시는 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년의 나이와 체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운동을 며칠 하시고 나서, 바로 병원을 찾아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천천히 산책하는 기분으로 매일 1시간 이상 꾸준히 걸으시는 걸 제일 추천하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가벼운 근력운동과 스트레칭을 하시는 습관 만들기도 필요하구요. 또 오랫동안 수면제를 드셨던 교수님께서 올해는 약 복용량은 줄이고 다른 방법으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셋째는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음식인데, 규칙적인 식사로 소식하시길, 육식의 양은 조금 줄이시길 권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냐고, 살짝 얼굴을 찌푸리실 교수님 표정이 그려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걸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못 지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요즘 목표는 '음식 천천히 먹기'와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기' 두 가지 입니다. 현대의학이나 한의학 모두에서 잠 시간대가 잠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새벽 2-3시가 되어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는 알람 소리에 힘들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일찍, 늦어도 10시-11시에는 자기 시작해서 7-8시간을 충분히 잔 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하면 피로가 쌓일 뿐 아니라 살도 더 찌게 되고, 암 발생율도 높아집니다. 일찍 자려면 자연히 일찍 귀가하게 되고 자꾸 일 벌이는 것도 자제하게 됩니다. 덤으로 야식도 저절로 줄어들게 되겠지요. 또 천천히 먹기 위해 여러 번 씹어 먹으니 자연스레 식사량도 줄어서 뱃살 걱정에서도 좀더 자유로워질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들을 몸에서 실감하게 되니 목표한 것을 더 잘 지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에 항상 깨어 있는 것이 내 몸 돌보기의 첫걸음입니다. 천천히 먹고, 자주 걷다 보니 몸의 감각이 더 잘 느껴지면서 따로 자리 잡고 앉지 않아도 그 시간이 그대로 명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작은 증상 하나에도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건 강염려증에는 빠지지 말아야겠지만, 몸에서 이런 저런 증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살피고, 그 앞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질상 하루에 물 8잔을 마시기 힘든 사람들이 있고, 저염식이 아니라 적당히 짜게 먹어야 활력이 유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셨을 때, 또 아주 싱겁게 먹었을 때 내 몸의 변화를 잘 살펴보면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해도 사람이니까 아플 때가 생깁니다. 그때는 주치의를 찾아 가시길 바랍니다. 꼭 대학병원 의사, 서울의 큰 병원 의사가 아니라도 가까이 있어 쉽게 갈 수 있고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의사 중에서 주치의를 만드십시오. 오랜 기간 만나서 나와 가족까지 잘 아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의사 1명, 한의사 1명 주치의를 옆에 두시고 자주 의논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걱정을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건강에 쉽고 빠른 왕도는 없는 듯합니다. 백 가지를 아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해서 습관으로 만들 때 건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뻔한 것들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교수님의 마음에 다가온 것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무엇을 교수님의 건강 실천 목표로 하시겠습니까?



따뜻함은 흩어지고 시간은 흐른다*



정일경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예전에 수능에서 국어 문제가 큰 논란을 일으키며 한동안 신문과 방송 그리고 SNS를 달구는 일이 있었다. 만유인력에 관한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인데 논란의 핵심은 지문의 난이도와 내용이 과연 수능 국어 문제로서 적절한가였다. 지문과 보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 '질점', '구 대칭', '부피 요소', 그리고 '구 껍질'등 수학적 용어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예능 방송에 출연한 모 대학 물리학과 교수가 만유인력 지문이 상식이라는 말을 했다가 함께 출연한 유명 작가로부터 이과 학생에게나 상식이라는 면박을 들었다는 기사도 보았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운행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계절의 변화 뒤에 숨은 자연의 법칙을 아는 것이 이과 학생들만 알아야 하는 상식인가? 우리 사회에서 과학 소양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물리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의 교수로서 고민이 깊어진다.

만유인력만큼이나 중요하지만 너무나 당연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물리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겨울철 써늘한 연구실에서 따뜻한 커피를 내려놓고 이런 저런 일들을 하다가 커피가 식어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이다. 조금 시간을 내어 식어가는 커피에 대해 생각해 보자.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자연의 비밀을 한 자락 알게 되는 행운을 누릴지도 모른다. 첫 번째 질문, 따뜻했던 커피의 열기(열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 이 질문은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연히 커피의 열기는 주위로 퍼져가 연구실의 공기를 살짝 데우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물리학에서는 따뜻한 커피의 열기가 차가운 공기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고(열역학 제 1법칙) 말한다. 이 시점에서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해보자. 왜, 따뜻한 커피는 차가운 방안으로 열기를 내어주고 식어지기만 하는 걸까? 거꾸로, 차가운 방안이 품고 있는 열기가 따뜻한 커피로 옮겨가서 커피가 더 뜨거워지는 일은 왜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리고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먼저, 차가운 공기에서 따뜻한 커피로 열기가 옮겨간다면 커피가 식어져서 마시기 싫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커피가 너무 뜨거워져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고 불평하게 될 지도 모른다. 물론, 방안의 공기가 조금 더 써늘해 지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총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하니까 말이다. 주위의 공기로부터 열기를 받아 커피가 저절로 뜨거워질 수 있다면 호수

나 바닷물에 저장된 열기를 뽑아내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거나 버려지는 열기(실외기를 생각해 보자)를 이용해 또 전기를 만드는 자가 발전기, 영구 엔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에너지 문제, 원전 문제로 골머리를 썩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차가운 물체에서 뜨거운 물체로 열기가 옮겨 가는 현상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추운 겨울날 식어가는 커피에 작용하는 물리 법칙을 연구하던 중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우지우스는 1865년경 라틴어에서 변환을 뜻하는 엔트로피(entropy)라는 신조어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엔트로피를 열(열에너지)과 온도의 비로 정의하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고 천명하게 된다. 이 주장은 현재 열역학 제 2법칙으로 알려져 있다. 클라우지우스가 엔트로피를 정의한 후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볼츠만은 엔트로피가 가지는 보다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즉, 엔트로피가 어떤 현상 또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주사위 2개를 던져 합이 2 또는 12가 나올 경우의 수 보다 7이 나올 경우의 수가 크므로 합이 7인 상태의 엔트로피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경우의 수가 큰, 가능성이 높은 상태와 무질서를 연관지을 수 있게 되었다. 연구실 책상 위의 물건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경우 중 어느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가? 이와 같은 볼츠만의 연구 결과로 인해 열은 따뜻한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흐른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 현상은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진행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우주의 시간이 엔트로피가 낮은, 매우 질서 있는 상태에서 엔트로피가 높은 무질서한 상태로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볼츠만 덕택에 물리학자들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달걀이 먼저인지 프라이가 먼저인지는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앞에는 궁극적으로 엔트로피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열적 죽음(heat death)이라는 음울하고 비관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열역학 제 2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엔트로피의 총합이다.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흩어져 있는 차가운 관심들로부터 열기를 모으고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다. 맨 처음 교수회가 생기고 교수 평의회가 시작할 때 따스한 열기를 한데 모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때 모였던 열기는 그동안 부산대학교의 발전과 교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퍼져갔고 이제 시간은 흘렀다. 개인적으로는 대학 평의원을 두 차례 하면서 예산 편성 실무 위원과 캠퍼스 기획 위원으로 봉사할 기회를 얻었고 이를 통해 대학이 처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부산대학교의 학칙 내에서 평의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지만 본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할 집단은 교수 평의회 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2024학년도가 마무리되어 간다. 그리고 2024학년도가 끝나면 제 19대 교수회 집행부가 마무리 되고 다음 교수회 임기가 시작된다. 내년 3월이 되면 캠퍼스는 신입생들의 웃음소리와 재학생들이 미래를 개척하며 내뿜는 열기로 가득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새로 시작하는 교수회와 교수 평의회가 모으는 열기로 부산대학교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따뜻함이 가득차길 기대해 본다.

* 글의 제목은 Hans Christian von Baeyer의 책 "WARMTH DISPERSES and TIME PASSES"에서 가져 왔다.

교양을 '교양있게' 가르치자

윤기헌
예술대학 디자인학과



아키타(秋田)는 일본 서북쪽 그러니까 동해 쪽 니이가타 위 아오모리 아래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쌀로 유명하며 눈도 많이 온다. 인구는 백만에 미치지 못한다. 이곳에 이른바 리버럴 공립대학이 30년 전에 문을 열었다. 아무도 주시하지 않던 이 대학은 지난해 일본 랭킹 15위, 100% 취업률을 자랑한다. 학생들 선호도에서는 1위를 하기도 한다. 명문 도쿄대, 와세다대 갈 재원들이 이 대학에 원서를 내고 있다.

지역소멸. 이른바 우리나라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정치사회 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 대학들은 시간에 비례해 고통을 겪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부산에서도 작은 대학들이 문을 닫거나 부실의 나락으로 치닫고 있다. 내가 아는 모 대학 교수님은 해마다 학과 이름이 바뀌고 있다. 머잖아 부산 시내에서 살아남을 대학이 얼마나 될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과거 화려한 영광을 뒤로하고 부산대학교도 순위가 중상위권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 도대체 저 시골 공립대학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 비결은 지역대학의 생존에 해답을 줄 수 있을까? 나는 부리나케 그 정보를 구하러 인터넷을 헤맸다. 답은 '혁신'이며 '차별화'였다. 정식 대학 이름은 국제교양대학(國際教養). 학부와 대학원 모두 글로벌을 분야이며 학부 800명, 대학원생 70여 명의 작은 중소 대학이다. 처음부터 초대 학장 나카지마 미네오(中嶋嶺雄, 1936-2013)의 남과 다른 생각이 혁신의 대학을 만들었다. 그래서 만든 것이 5개 원칙이다.

1. 모든 수업은 소수 정예. 토론식이며 100% 영어 수업이다.
2. 1년간 의무적으로 교환학생을 가야 한다. 등록금은 상호 면제이며 200여 개 대학에 단체가 아닌 개별로 소수 학생만 파견한다.
3. 캠퍼스 내 4명 중 1명은 유학생이며, 학생들은 국적을 고루 섞어 같은 방을 쓰게 한다.
4. 365일 24시간 도서관을 개방한다.
5. 입시제도가 다양해 16가지 방법으로 6번의 기회를 준다.

한국 EBS가 여기를 취재했다. 일본 학생은 글로벌 문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노르웨이와 중국 친구와 기숙사를 같이 썼는데 처음엔 매일 파티를 해서 짜증 났어요. 그런데 1년 지나니까 서로 이해를 하게 되더라구요." 글로벌을 몸으로 겪게 하는 게 신의 한 수이다. 교양 음악 수업. 각자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교수에게 성적을 어떤 기준으로 매기냐고 물었다. "출석이죠. 우리가 전문 연구자가 될 것도 아니고 즐겁게 참여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태초부터 21세기까지 교양을 상대평가로 묶고 강제하는 한국의 대학이 귀담아들어야 할 답이다. 교양이 즐겁지 않은 이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ALL 영어 수업은 국내 유수의 대학도 실패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 대학은 대안으로

입학 직후의 EAP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이라 불리는 학술 영어 프로그램에서 토플(PBT) 500점과 GPA 2.5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게 하여 EAP를 수료하지 않으면 다음 BE(Basic Education)라고 불리는 기반교육 과목을 이수할 수 없게 했다. 어쨌든 어학이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단계별 과정을 만들었다. 제2외국어까지 겸비한 이곳 출신들은 일본 모든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된다. 유학생과 반드시 같은 방을 쓰게 하는 것, 교환학생 필수 프로그램은 지방대학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도서관 하루도 시지 않고 밤새 개방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지금 정책을 집행하는 교수들이 모두 3, 40년 전 배웠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니 이런 혁파가 어려운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키타 국제교양대학처럼 모든 시스템의 혁파는 혁명보다 어려울 것이다. 나는 우리 대학이 교양만이라도 관대해졌으면 좋겠다. 교토대학. 노벨상 수상자가 도쿄대보다 많은 명문대학이다. 그곳에서 실시하는 '포켓 교양'이 인기이다. 매 학기 희망하는 교수만 1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소수의 학부생이 수강 신청하게 해서 세미나 식으로 수업을 하게 한다. (학생에게는 1학점 부여). 〈어류 심리학 입문〉, 〈추모 시설과 교육〉 같은 왠지 매니악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정해 학생 10명 이내를 모으게 한다. 실외에서 연구실에서 가끔 모여 세밀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같이 탐구한다. 결과가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영국은 기상천외하고 알쓸신잡 부류의 연구에 나라에서 연구비를 준다. 〈테트리스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도둑들이 가장 선호하는 운동화〉를 찾는다. 도둑들의 발자국을 분석해 가장 빈번히 등장한 운동화 상표 종류를 찾고 그 근거를 따져 본다. 이런 연구가 가능한 것은 그런 노력이 창의적 연구의 연장 선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20년간 주장하는 것은 최소 두 가지다. 교양필수를 없애자. 영어 컴퓨터가 기본인 시대는 7080시대였다. 그때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유치원 때부터 원어민 수업을 듣고 태어나서부터 게임을 했던 세대이다. 토익 어차피 취업 때문에 해야 한다. 쓰기, 말하기, 토론, 고전? 그것도 마찬가지이다. 강제해서 "이건 교양이야, 이걸 익혀야 해!"라는 인식 자체를 없애야 한다. 모두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자. 다시 말하지만, 교양은 전공과목이 아니다.

두 번째. 평가단위를 바꾸자. 전공과목과 마찬가지로 상대평가로 모든 교양과목을 재단하니 학생들은 교양이 하나의 점수 따기 과목일 뿐이다. 나는 몇 해 전까지 〈만화의 이해〉라는 교양수업을 진행했었다. 만화의 기초와 상식 수준의 감상 수업이라서 사실 별것 없었다. 그런데 나는 매 학기 첫 시간마다 학생에게 양해를 구하느라 길게 설명을 해야 했다. 대중문화를 교수나 학생이 즐겨보자는 수업인데 결국 기말에는 살벌한 상대평가로 만나야 한다. 정원의 30% 이하 학생에게는 반드시 C+ 이하를 주어야 한다. 그러니 학생들이 교양이 아닌 게 된다. 즐기지 못하는 것이다. 교양 대신 스트레스를 갖고 간다. C+ 받고 허허 웃으며 교양 재밌다 할 학생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전공과목만 해도 학생들은 힘들다. 교양과목에 부담을 덜어 주고 평가를 절대평가나 패스 개념만 도입해도 오히려 학문의 종합비타민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큰 배움터 대학은 크게 가르쳐야 한다. 창의성을 교실에 가두어 넣고 정해진 기준에 맞게 평가해 인재가 길러진다면 세계 모든 대학이 다 명문대학이 된다. 교양과목이 프리해진다고 해서 부산대학의 수준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적어도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전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교양수업을 듣는다는 자부심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양', '소양'을 쌓게 하겠다며 교수들이 70, 80년대 배운 그대로 21세기 후학들에게 강제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교양 없는' 행위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2024년 9월 ~ 2025년 2월 퇴직(예정) 교수 명단

연번	성명	단과대학	학과	직급	사유
1	김무성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정년퇴직
2	이찬호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정년퇴직
3	강상목	경제통상대학	경제학부	교수	정년퇴직
4	이득우	나노과학기술대학	나노에너지공학과	교수	정년퇴직
5	정명영	나노과학기술대학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교수	정년퇴직
6	민영성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정년퇴직
7	박찬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정년퇴직
8	오미일	부속연구소	통일한국연구원	부교수	정년퇴직
9	김동화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	정년퇴직
10	박재국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교수	정년퇴직
11	박철홍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교수	정년퇴직
12	강재호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정년퇴직
13	김진영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년퇴직
14	이한성	생명자원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정년퇴직
15	권미정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정년퇴직
16	한지숙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정년퇴직
17	강미리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정년퇴직
18	김문규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	정년퇴직
19	박용실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정년퇴직
20	박은화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정년퇴직
21	송근성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정년퇴직
22	우재석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정년퇴직
23	임영탁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정년퇴직
24	윤애선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	정년퇴직
25	이용권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교수	정년퇴직
26	김영진	자연과학대학	분자생물학과	교수	정년퇴직
27	정옥상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교수	정년퇴직
28	주기재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교수	정년퇴직
29	차명식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	정년퇴직
30	홍덕기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	정년퇴직
31	홍창곤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교수	정년퇴직
32	정상화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정보컴퓨터공학부	교수	정년퇴직
33	정명호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교수	정년퇴직

2024년 9월 신규 임용 교수 명단

연번	성명	단과대학	학과	직급
1	강민수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조교수
2	이영초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조교수
3	김성학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4	박종혁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조교수
5	권성현	공과대학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조교수
6	조성헌	공과대학	화공생명·환경공학부	조교수
7	석오균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조교수
8	유인재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부교수
9	배범준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조교수
10	정재희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조교수
11	김민수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조교수
12	정 결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조교수
13	김미정	경영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14	윤여선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조교수
15	최인영	생활과학대학	실내환경디자인학과	조교수
16	KHODR Yamila	예술대학	무용학과	조교수
17	김동환	생명자원과학대학	동물생명자원과학과	조교수
18	김보현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19	최철웅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20	신명준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21	박현준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22	조영혜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
23	이승현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24	박종환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25	최윤경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조교수
26	지봉준	데이터사이언스전문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조교수
27	권은영	IBS기후물리연구단		조교수

교수회 조직도



교수회 임원			
직책	성명	대학	학과
회장	김 정 구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정보컴퓨터공학부
수석부회장	권 순 복	인문대학	언어정보학과
부회장	배 순 식	의과대학	융합의과학과
부회장	권 정 남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사무총장	선 호 근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기획홍보위원장	김 중 수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재정위원장	허 석 렬	생명자원과학대학	IT응용공학과
학사위원장	김 현 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권익복지위원장	신 택 순	생명자원과학대학	동물생명자원과학과
캠퍼스환경위원장	권 준 호	데이터사이언스전문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감사	조 영 석	자연과학대학	
감사	박 선 엽	사범대학	

평의원 명단					
성명	대학	학과	성명	대학	학과
서영건	인문대학	사학과	김보경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양영란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이정호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한정선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박하나	예술대학	음악학과
신지은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장승철	나노과학기술대학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김진현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송우진	나노과학기술대학	나노카트로닉스공학과
김태진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김선태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생명과학과
임현수	자연과학대학	지질환경과학과	서성백	생명자원과학대학	바이오소재과학과
조영헌	자연과학대학	해양학과	강인순	간호대학	간호학과
허영기	공과대학	건설융합학부	이윤주	간호대학	간호학과
현 규	공과대학	응용화학공학부	이호석	의과대학	의학과
김형남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배재호	의과대학	융합의과학과
이대우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김영미	의과대학	의학과
박창언	사범대학	교육학과	이진호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의생명융합공학부
김도연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김은미	국제전문대학원	-
김현석	경제통상대학	경제학부	설효정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김인신	경제통상대학	관광컨벤션학과	윤미정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김영희	경영대학	경영학과	김기왕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지상현	경영대학	경영학과	권 강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임은옥	대학원	약학과	김이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윤화영	대학원	제약학과	문준영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한정원	생활과학대학	실내환경디자인학과			

부산대학교 교수회
Faculty Council Pusna National University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
Tel. 051-510-1225 / Fax. 051-515-2236
E-Mail. facultycouncil@pusan.ac.kr / Homepage. https://faculty.pusan.ac.kr

144호

교수회보

2025년 2월

부산대학교 교수회
Faculty Council Pusna National University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
Tel. 051.510.1225
Fax. 051.515.2236
E-mail. facultycouncil@pusan.ac.kr
Homepage. https://faculty.pusan.ac.kr